

8 문화

창간 70주년 기념식 “70년 역사속 함께 성장”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18일, 평화의전당에서 열렸다. 행사 전, 동문들은 기념으로 받은 대학주보 야구점퍼를 입으며 학생 시절 추억에 잠겼다. 김종범(국어국문학 1998, 만화가) 동문이 그린 대학주보 70주년 기념 일러스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반가워 악수와 포옹이 오갔다.

하시연(미디어학 2023) 편집장의 연혁 보고로 1부가 시작됐다. 70년 연혁 보고가 끝난 후, 하 편집장은 “100주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대학주보는 여기 계신 동문과 경희 구성원을 등에 업고 열심히 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윤재 신문방송국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남 국장은 “이곳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은 우리 대학주보 역사의 주역”이라며 “70년 역사 속에 저 또한 작은 흔적을 여기에 남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대학주보 30기 이기철(원자력공학 1981) 동문회장은 “이곳에 젊음을 새겼던 우리와 같이 참석한 현역 기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진 대학주보 발행인 김진상 총장의 축사에서 김 총장은 “경희 70년 대학주보 역사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닌, 여기 계신 여러 동문 선배분들의 정론, 정필, 날카로운 시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축사 이후 대학주보 42기 이유경(불어불문학 1993) 동문이 직접 만든 달항아리를 김 총장에게 선물하며 1부가 마무리됐다.

2부는 대학주보 현역 기자의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편집장을 시작으로 정기자와 선임기자가 차례로 소개됐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71기 이동건(행정학 2019) 기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대학주보의 정체성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오찬과 함께 참석자 간에 자유로운 화담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오찬 중 참석자 축사도 있었다. 대학주보 7기이자 전 주간교수 이광재 교수는 “처음 우리학교의 규모는 수백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3만 4천 명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며 “대학주보는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성장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창간 70주년 특별 기획 중 ‘나는 학생기자다’ 편에 참여했던 동문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57기 박설희(법학 2008) 동문은 “대학주보에서 학생 기자 활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니 버티는 것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기획안도 잘 쓰고 사회에서 못 할 게 없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70주년 기념행사는 현역 기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70년 동안 대학주보를 거쳐 간 선배 기자들의 치열했던 취재와 보도활동은, 현역 기자들의 더 나은 기사, 더 나은 저널리즘을 향한 다짐으로 이어졌다. 100주년을 넘어, 더 먼 미래를 향해 대학주보는 앞으로도 쉽 없이 나아가겠다.



① 1학년 공연에서는 신입생 48인이 개인 무대를 펼쳤다. ② 2학년 공연은 한국 무용 전공 12인의 ‘김백봉 화관무’로 막을 열었다. ③ 3학년 현대 무용에서는 ‘Swan Cake’ 8인 군무 등 총 9개 무대를 선보였다. ④ 4학년 발레 공연에서는 ‘The Awakening of Flora’ 솔로 작품을 선보였다. (사진=조한음 기자)

선후배가 만든 4일간의 무용축제 〈레파토리 발표회〉성황리에 종료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학년별로 펼치는 무용학부 〈레파토리 발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레파토리 발표회는 지난 19일 무용학부 1학년 공연을 시작으로, 20일 2학년, 22일 3학년, 23일 4학년 공연까지 4일간의 발표회가 모두 끝이 났다.

지난 19일 열린 1학년 공연에서는 신입생 48인이 개인 무대를 펼쳤다. 인당 1분 30초에서 3분 이내로 무대를 꾸몄다. 한국무용에서는 ‘강선영류 태평무’, ‘연옥편: 제3곡’ 등의 작품을 재현했다. 발레에서는 ‘Giselle(지젤)’, ‘La Esmeralda(에스메랄다)’ 등의 작품을 펼쳤고, 현대 무용에서는 개인 창작 임시 작품을 재현했다.

20일 2학년 공연은 한국 무용 전공 12인의 ‘김백봉 화관무’로 막을 열었다. 발레에서는 ‘Giselle Peasant Pas de deux(지젤 페전트 파드되)’ 듀엣 작품을, 현대 무용에서는 ‘If At All(이프 앳 얼)’ 10인 군무 등 총 10개 무대를 선보

였다. 지젤 페전트 파드되 무대를 선보인 무용학부 박서희(발레 2024) 씨는 “첫 듀엣 작품이라, 파트너랑 호흡을 맞추는 게 어려웠다”며 “작년과 달리 기술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쓰느라 힘들었다. 끝나고 나니 엄청 후련하다”고 말했다.

22일 3학년 공연에서는 한국 무용 전공 14인의 ‘북춤’으로 막을 열었다. 발레는 ‘Napoli(나폴리)’ 듀엣, 여성 3인무 등이 합쳐진 3막 작품을, 현대 무용에서는 ‘Swan Cake’ 8인 군무 등 총 9개 무대를 선보였다. 북춤과 권명화류 소고춤 무대를 선보인 무용학부 홍명인(한국무용 2023) 씨는 “악기와 안무를 같이 하려면, 박자와 손, 팔, 다리까지 모두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타악 실력이 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스승의 공연을 관람하러 온 고등학생도 있었다. 김태강(현대무용 2023) 씨의 제자로, 재즈를 전공하고 있는 서울컨벤션고등학교 3학년 홍진비 씨는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는 공연을 본 적이 없었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며 “공연을 보고,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3일 4학년 공연은 한국 무용 전공 11인의 ‘북춤’으로 막을 열었다. 발레에서는 ‘Carmen’ 솔로 작품을, 현대 무용에서는 ‘27 “52”’ 2인 작품 등 총 11개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은 특히 마지막 레파토리 발표회였던 만큼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다. 북춤과 권명화류 소고춤 무대를 선보인 무용학부 4학년 최신아(한국무용 2022) 씨는 “동기들과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잘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하며, “4년간의 레파토리 발표회를 통해 단합력과 사회성을 기르게 됐다”고 말했다.

학과 선배의 공연을 관람하러 온 송민경(무용학 2023) 씨는 “역시 선배들답게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보인 것 같다”며 “3년 동안 함께 지낸 선배들의 마지막 커튼콜 장면에 괜스레 울컥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평화의 전당에서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서세종 기자)